

한·미 FTA 발효 후 대미 수출 오히려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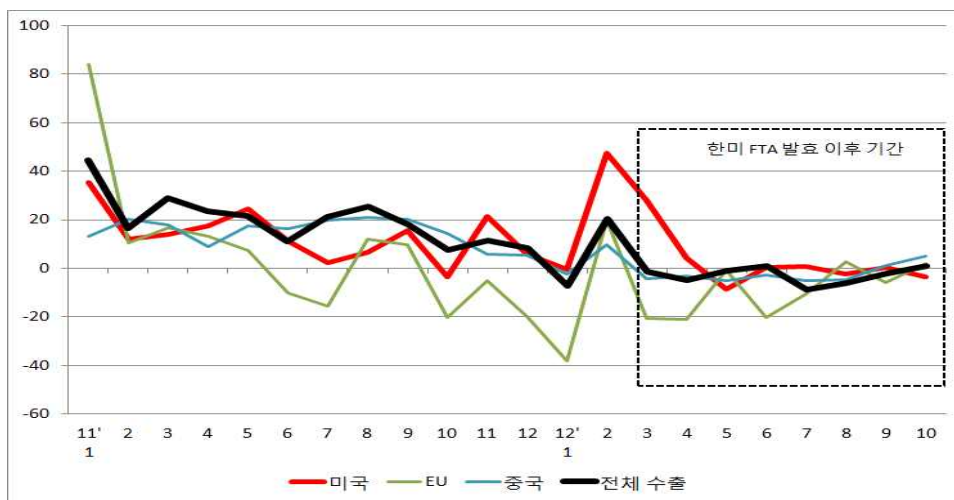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 지향적 경제 성장을 추구해오던 국내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를 통한 시장 확대가 저성장 극복 방안으로 제시되었지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한미 FTA 이후 특정 시점의 대미 수출 감소를 사례로 제시하면서 FTA의 효과가 국내 기업의 수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미 수출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한미 FTA 이후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출 증가율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환율이나 수출대상국의 경제여건을 고려해보았을 때, FTA 활용을 통한 수출 증가 효과가 없었다는 보도는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

- 최근 한미 FTA 발표 이후 대미 수출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있다는 보도가 나옴
 - 2012년 7월과 9월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0.9%와 0.4%가 증가하였지만 8월과 10월에는 2.3%와 3.5%로 감소하여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대미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1월에서 9월까지 한국의 대미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4.4% 증가했지만 한미 FTA 발효 이후 9월까지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2.9%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 수출 증가율이 오히려 둔화되었다고 보도
 - 일부 언론에서는 이와 같은 데이터를 통해 한미 FTA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도
- 수출 증가 여부를 판단할 때 월별 통계나 해당 국가로의 수출 추이만을 고려할 경우 수출 환경이나 상대적인 성과를 반영하지 못함
 -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시한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 추이를 월별 데이터만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일정한 패턴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설정 기간에 따라 수출 효과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
 - 또한 전반적인 수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요 국가에 대한 수출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

- 다른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대미 수출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된 3월 이후 9월까지 대미 수출 증가율은 전체 수출 증가율 보다 대체적으로 높으며 중국, EU, ASEAN 등 주요 수출국보다 수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월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국에 대한 월별 수출 증가율 추이>

(단위: 월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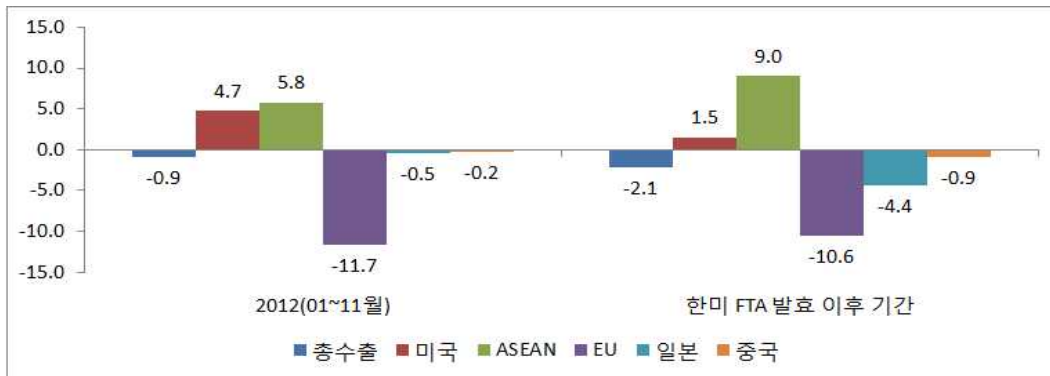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 2012년 11월까지의 수출 누적액을 살펴보면 대미 수출은 작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미 FTA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2012년 1월에서 11월까지의 수출 누계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체 수출은 0.9% 감소하였지만 대미 수출은 4.7% 증가함
- 한미 FTA 발표 이후 11월까지 수출(1.5% 증가)을 살펴보아도 대미 수출은 EU (-10.6%), 중국(-4.4%), 일본(-0.9%) 등의 주요 수출국가로의 수출보다 선전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미국의 경제 여건상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년 대비 수출액이 증가한 것은 한미 FTA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

<누적 수출액 증가율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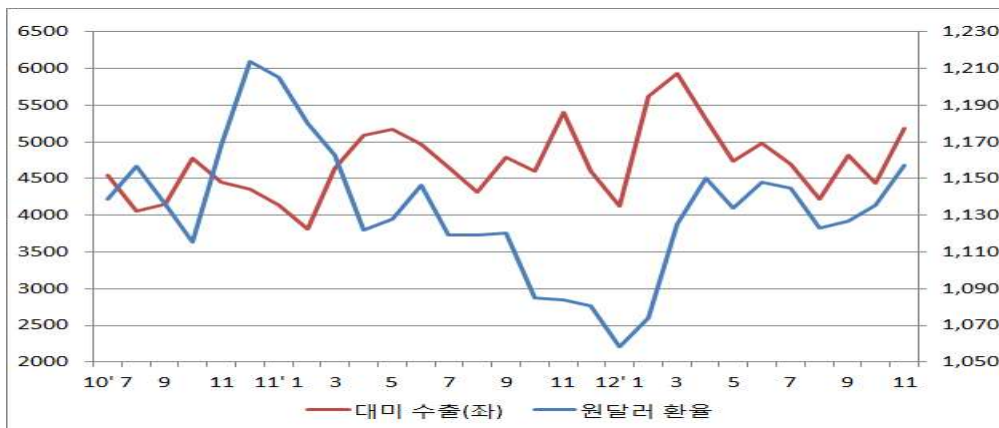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 수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환율과 같은 수출 환경 요소들도 고려해야 함
 - 특히 2011년 7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오던 원달러 환율은 양적완화 정책 등으로 달러 이동성이 확대되면서 올해 상반기부터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수출 가격 경쟁력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됨
 - 원/달러 환율의 지속적 하락에도 불구하고 누적 대미 수출이 증가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대미 수출 및 원달러 환율 추이

(단위: 백만달러, 달러대비 원)



주: 환율변동이 수출 가격에 전가되는 데에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최근의 수출액 추이는 6개월 전의 환율 흐름을 반영

자료: 무역협회

- 따라서 1, 2개월의 단기적 수출 실적을 통해 한미 FTA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큰 흐름을 읽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음